

# 일자리 만들고 우울·고독 해소... 일석삼조 '마을 밥상'

광주 광산구가 주거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복지 개념을 전환하는 '실함'에 착수했다.

광산구는 지난 9일 하남주공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하남종합사회복지관에 '한술밥 카페'를 열고 입주주민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이웃이 이웃을 돌보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일자리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 모델을 주목한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난해 9월 지원하면서 시작했다.

한술밥 카페는 이 아파트 단지 안 하남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새로 마련한 마을 공동식당이다. 아파트 안에서 홀로 사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저녁 밥을 매일 1500 원에 제공한다.

한술밥 카페는 여러 이유로 끼니를 거를 우려가 큰 주민들이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소통과 교류로 서로에게 힘을 주는 '이웃사촌'이 되도록 뒷받침한다.

또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 낮에는 주민 커뮤니티 거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하남복지관 '한술밥 카페' 개소

### 하남주공 입주주민들 함께 식사

###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문화 형성

### 삶의 질 개선 새 복지실험 착수

한술밥 카페는 광산구와 하남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는 '상상(相相)마을 프로젝트'의 하나다. 최근 1인 세대 증가로 인한 우울증과 고독사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높여 적절한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게 프로젝트의 목표다.

상상마을 프로젝트는 각 분야 복지관 활동 전문가와 지난 2016년 6월 구성된 TF의 결과물이다. 현장 조사를 수립한 12가지 정책 중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한 공동식당과 사회돌봄서비스 시행이 주요 내용이다.

하남주공영구임대아파트단지 입주민 40여 명이 '이웃지기'로 활동하며 서로의 집을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힘쓰는 현재 상황은 이 프로젝트의

성과물이다. 프로젝트 운영, 돌봄활동가, 조리사로 일할 직원도 광산구 주민 6명을 채용해 총원했다.

상상마을 프로젝트는 올해 사업을 인근 하남시영2단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해 고장 난 가전제품을 고치는 만물수리센터, 상상나눔장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영구임대아파트 역시 '마을'이라는 관점에서 단순한 주거공급 차원에 머물지 않고 마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새로운 사업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지난 9일 열린 한술밥 카페 개소식에서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일일세프로서 나서 주민들과 함께 도토리묵 무침과 샐러드를 만들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민 구청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사업이 시작된 90년대 초반 과제가 주거 해결이라면 이제는 삶의 질 향상으로 대응 초점을 바꿔야 한다"며 "주민 주도로 마을공동체를 복원해 고립에서 연대로, 빈곤에서 행복으로 발전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지난 9일 하남주공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하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술밥 카페' 개소식이 열렸다. 개소식 후 참가자들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산구 제공>

##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토론회

### 오늘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

광주 광산구가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토론회'를 21일 오후 2시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광산구가 청소년 현장 활동가들과 진행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나은 청소년 노동·인권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광산구가 진행한 실태조사에 참여한 청소년과 청소년 노동인권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함께한다.

허창영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센터 조사관이 좌장을 맡고 임형문 광산구 정책자문위원이 발제자로 나선다. 임 위원은 '광산구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가 끝난 후 이철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과 이승희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 박서영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그리고 청소년 고용주가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시와 광주시의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책,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지급 문제 해법, 청소년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등이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문의 062-960-8881.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새해에는 생명 살리는 영웅 어머세요?

### 광산구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무료 강좌 운영

"새해에는 생명 살리는 영웅 어머세요."

광주 광산구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20일 밝혔다. 예약한 단체는 원하는 장소에서, 개인은 광산구 보건소 3층에서 진행한다.

개인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오전), 단체(20인 이상)는 첫째·셋째주 금요일 오전과 오후에 강좌를 운영한다.

광산구 보건소 홈페이지(health.gwangsan.go.kr) 또는 담당 전화(062-960-8734)로 교육 예약을 받는다.

교육은 응급상황에서 누구나 대처 가능하도록 '실전' 위주로 진행한다. 전문가의 일대일 지도와 실습 마네킹을 사용해 올바른 심폐소생술과 자동



광산구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

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힌다. 골절, 화상, 저체온, 기도폐쇄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안전사고 응급처치도 배운다. 교육은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진행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심정지 1분마다 뇌기능도 10%씩 감소해 10분 이상 체하면 뇌사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며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영웅'을 양성하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지역발전위 호남특별위원장 위촉된 민형배 광산구청장

### "지역 주도 모델 제시... 호남 발전 이끌 것"

"지역주도·국정협력으로 호남발전 견인하겠다."

지난달 15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호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자치분권은 지역 스스로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시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이 지역 주도형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전국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호남특별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003년 참여정부에서 출범시킨 국가균형발전 자문기구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새롭게 힘을 얻은 지역발전위원회가 호남특별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장인 민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선정한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아래는 민 광산구청장과 나는 일문일답.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호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소감은 어떤가?

▲책임감과 사명감이 막중해 마음이 아주 무겁다. 그동안 국가주도 개발전략 하에서 소외를 거듭한 호남의 현주소를 깊이 인식하기 때문이다. 책임감을 해소하는 일은 호남소외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세우겠다. 평소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름의 일을 찾아서 하려 했다. 마침 적절한 기회가 왔다. 대통령 직속 기구 특별

위원장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현장에서 일군 성과로 뒷받침하겠다.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이유가 무엇인가?

▲지역발전위원회 사무실에 가면 '지역이 주도하는 나라'라는 구호가 붙어있다. 추후추진대 이번 호남특별위원 인선도 여기에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지역이 주도하는 시대에 걸맞게 지역에서 자치분권 활동과 관련 정책을 잘 한 사람을 찾았다고 본다. 여기에 예전처럼 낙하산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과 활동한 것을 선정 기준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번에 지역위원회로는 처음으로 호남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어떤 의미가 있나?

▲형식적인 면과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우선,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자는 의미가 있다. 지역이 원하는 발전방향을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다. 내용면에서 보면 시급함이다. 두 말 할 필요 없이 호남의 낙후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다. 호남 낙후 문제는 이중적이다. 다른 지역과 호남권의 격차가 있다. 여기에 광주와 전남, 전남과 전북, 전남 동부와 서부 등 답권 내의 격차도 존재한다. 이러한 안팎의 격차 해소에 호남특별위원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라는 의미이다.

-호남특별위원회가 수행할 구체적인 임무는 뭔가?

▲한마디로 균형발전이다. 그동안의 차별과 소외, 낙후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크게 세 가지 틀로 업무를 구분한다. 첫째로 최대한 빨리 위원회를 열어 사업 방향을 정리하겠다. 이번에 호남특별위원으로 위촉된 김승수 전주시장, 주철현 여수시장을 비롯해 전문성을 갖춘 분들과 조직과 사업의 뼈대를 확충할 계획이다. 둘째로 광주, 전남, 전북 불균형 실태 조사로 정확한 문제를 짚어내고, 호남 내부의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겠다. 세 번째로 호남의 혁신전략 사업, 대통령 공약사업, 국정과제, 국책사업에서 호남 관련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 구례, 그랜드 호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11-2
- 지리산온천 정문 바로 앞, 최고위치
- 대지489평, 건물 768평, 대형객실 40개
- 지하1 지상4층, 엘리베이터 유
- 식당(300명 수용), 커피숍, 단란주점/세미나실
- 케이블카 설치 최우선 지역
- 연 매출 8~10억/순수익 4억~5억 가능
- 감정가 / 시세 - 25억
- 매매 - 20억

##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2월 중순 입주가능
- 시세 - 1억
- 매매 - 7200만원

주인직매 H.010-3605-5000